

■ 그림 여행

**개스 (Gas c. 1940)**

에드워드 하퍼 (Edward Hopper 1882 - 1967)

캔버스에 유채 66,7 cm x 102,2 cm
뉴욕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이 그림은 1940년대에 그려졌다. 미국 화가 에드워드 하퍼가 그렸다. 에드워드 하퍼는 20세기 중반 산업화되고 현대화 되어 가는 미국 대도시들과 그 속에 살아가는 현대 미국인들의 모습을 황량하고 메마른 느낌으로 그려냈다. 넘치는 감정, 신랄한 비판, 또는 과도한 코멘트 없이 그저 바라보는 객관적인 자세로 냉담하게 그렸다.

그러다 보니 그림을 보는 관객의 지평은 오히려 더 넓어졌다. 화가가 요구하는, 혹은 강요하

는 바가 없으므로 관객들은 편견이나 선입관 없이 하퍼의 그림을 들여다보았고, 각자 자신을 스스로 느끼고 원하는 것을 읽어냈다.

흔히 하퍼의 그림은 낯선 풍경과 고독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평한다. 주유소를 그린 이 그림도 그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저녁 무렵,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길옆으로 검은 숲이 우거져 있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가에 외로운 주유소가 있다. 나란히 늘어선 빨간 펌프 위로 등이 커져 있다.

이 그림을 처음 본 후로 아주 오랫동안 펌프 앞에 있는 남자가 주유를 하러 들어 온 손님이라고 생각했다. 외로운 길을 달리다 역시 외롭게 서 있는 주유소에 혼자 들어와 북북히 개스를 넣고 있다고. 그런데 자동차가 없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최근에 이 그림을 다시 보니 이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주유소 직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외딴 주유소에서 혼자 펌프를 점검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그림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어버렸다.

고독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이런 시골길 위의 주유소에까지 스며들어 있다. 무언가 설명이 되지 않는 낯선 풍경 속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같이 잡히지 않는 공허한 인간의 모습. 자동차 바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1940년도 그림의 느낌이 어쩐지 운전석에 홀로 앉아 자동차의 흥수 속에 밀려가는 21세기 인간들의 심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동백

■ 박물관 탐방

■ 루브르 박물관 (Le musée du Louvre)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국립 박물관으로 바티칸 교황궁 내 바티칸 박물관,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지금의 건물은 루브르궁을 개조한 것으로, 1190년 지어졌을 당시에는 요새에 불과했지만 16세기 중반 왕궁으로 재건축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

1793년 궁전 일부가 중앙 미술관으로 사용되면서 루브르는 궁전의 틀을 벗고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으며, 그 가치를 인정 받아 현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집트 고대유물관, 근동 유물관, 그리스와 에트루리아, 로마 유물관, 이슬람 미술관, 조각 전시관, 장식품 전시관, 회화관 그리고 판화와 소묘관 등 8개의 전시관으로 나뉘어져 있다.

BC 4000년부터 AD 19세기에 걸친 각국의 미술 작품 약 3만 5천 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소장품수는 38만 점 이상, 하루 평균 방문자는 약 만오천명이다. 전체를 돌아보려면 며칠은 걸리므로 관심 있는 작품이 있으면 그 위치를 파악해 미리 동선을 짜두는 것이 좋다.

모나리자, 모차르트의 초상화와 밀로의 비너스상 등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이라 할 수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자랑하기도 한다. 루브르 박물관 앞의 유리 피라미드 조형물은 근대에 건설된 것으로 한 때 어울리지 않다는 평이 많았으나 현재는 루브르를 대표하는 조형물이 되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작품이 전시되려면 작가가 죽은 지 6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타운뉴스 업소록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

아래 빙ican을 자세히 적으셔서 FAX 주시거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소명 : 신규 변경 (구 업소명:
(영문)
(한글))

업종 :

전화 :

FAX :

주소 :

업소록 광고에 관심있습니다. 영업사원을 보내주십시오. 아니오 네

최대의 발행부수를 통한 광고효과의 극대화로
성공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타운뉴스가 만들면 확실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광고에 참여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최고의 업소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타운뉴스 업소록은 정확합니다!

지금 업소록 리스트 확인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수록을 위해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타운뉴스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www.townnewsusa.com

E-mail : info@townnewsusa.com